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 비결은...백신비용 전액 지원

향체양성률, 소 98.9%·돼지 93.6%·염소 95.4% 역대 최고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접종해 동물 면역 강한 전남 만들 것”

전남도가 구제역백신 접종 지원을 통한 향체 양성률 개선으로 국내 육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구제역백신 향체 양성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소 98.9%,

돼지 93.6%, 염소 95.4%로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구제역백신 향체 양성률은 지난해 말 돼지가 처음으로 90%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올해 3월과 4월 잇따라 93.3%를 기록한데 이어 5월 말에는 93.6%까지 올라섰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백신 비용을 전액 지원한 데 따른 성과로 올해 사업비는 101억원이다.
 향체 양성률이 타 축종 대비 낮은 염소는 방목해 사육하는 특성상 포획해 백신을 접종하기 어렵고, 포획했다라도 계속 움직여 약을 잘못 주입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무리에서 빠져나간 개체가 접종에 누락되는 것도 양성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마리당 8000원인 염소

포획접종 시술비를 1만원까지 올리고, 17만 1000마리의 접종을 지원해 지난해 대비 양성률을 7.2%p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소의 경우 접종이 어려운 고령농가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공공수의사를 투입해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향체 양성률이 100%에 근접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유럽 등 해외에서 계속 발생하는 구제역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국가 재난 가족질

병”이라며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마쳐 구제역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동물 면역이 강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2000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해 2019년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를 끝으로 최근까지 전국에서 11차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 돼지 등 가축 살처분, 소독 비용 등에 3조 3000억원 이상의 재정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면역력 있어도 뚫린다...변이 BA.2.75 확산 촉각

WHO, 우려변이 세부계통에 포함
 5월말 발견후 인도서 빠르게 확산
 미국·유럽 등 10여 개국 발견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하위변이인 BA.2.75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빠르게 확산하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시 중인 우려변이 세부 계통(VOC-LUM)에 BA.2.75를 포함했다. WHO는 우려변이로 간주되고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오미크론(BA.1) 및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하위변이를 ‘VOC-LUM’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세종으로 떠오른 BA.5와 BA.4도 이 등급에 들어가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 등에서 BA.2.75라는 세부계통이 확인됐으며 현재 감시 중이다”고 밝혔다.
 BA.2.75는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첫 발견 후 인도의 새로운 우세종으로 떠오를 만큼 전파력이 빠른 게 특징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확인됐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이름을 따 ‘켄타우로스’라는 호칭으로도 불린다.
 BA.2.75의 또 다른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일어난 변이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 및 세부계통 보다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BA.2.2

다 스파이크 단백질 9개 부분에서 추가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에서 재확산을 주도했던 BA.2.12.1 변이는 BA.2에서 2개의 추가 변이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면역 회피 능력이 더 강해져 기존에 확인됐던 사람들도 재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릭 토폴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BA.2.75에 대해 우려되는 건 BA.5를 뛰어넘는 변이다”며 “더 나쁜 면역 회피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엇보다 인도에서 빠르게 우세종이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변종은 전염력, 면역 회피, 중증 회피의 3가지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인도에서 기존 오미크론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변이가 많으니 면역회피 능력도 크다. 다만, 중증 악화에 대한 선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 인도에서 델타의 첫 출현 후 매우 빠르게 확산해 7월 국내에 유입됐다. BA.2.75 역시 인도 발 변이이고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며 “WHO가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등재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변이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니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BA.2.75의 성격과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기엔 이르다고 봤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BA.2.75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기동취재본부



‘연꽃 구경 나선 시민들’ 완연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공원에 연꽃이 피어나고 있다.

‘반도체 수급 차질’ 기아차 광주공장, 상반기 생산량 소폭 감소

21만9770대...전년동기 대비 6.7% 감소
 기아차 광주공장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이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상황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지난 1-6월까지 생산량은 21만9770대(내수 8만 1313대, 수출 13만8457대)로 지난해 동기 23만

5375대에 비해 6.7% 감소했다.
 차종별 생산 대수는 ▲스포티지 7만2206대 ▲셀토스 6만2678대 ▲봉고트럭 4만9760대 ▲쏘울(쏘울EV포함) 3만3546대 ▲기타(대형버스, 군수) 1580대 등이다.
 기아 오토랜드는 제1공장에서 생산되는 더 뉴 셀토스가 7월 출시 예정이어서 생산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완연한 반도체 배분과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상품성 개선모델인 더 뉴 셀토스가 7월 출시 예정이어서 생산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